



하루와 미요

임정자 글 | 박세영 그림
문학동네 | 초등 1학년 이상

3-1 국어활동 수록
어린이도서연구회 추천도서
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

활동1 하루에게 편지를 써요 -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」-

“날 보러 와. 날 보러 와.”

작디작은 강아지 하루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속삭임에 집을 떠납니다.

쌔애앵 트럭이 오가는 한길, 집어삼킬 듯 흐르는 냇물을 지나
무섭기로 소문난 개가 사는 과수원까지. 처음 나선 길은 험하지만 하루는 달립니다.

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.

잘한 점을 칭찬하거나 궁금한 것을 물어보아요.



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에게

① 첫인사, 자기소개

② 하고 싶은 말

③ 끝인사

④ 날짜, 편지 쓴 사람



활동2 미요와 이야기를 나눠요

-「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」

“오기만 해. 오기만 해.” 찰랑대는 물결은 으름장을 놓고,

“고양이가 헤엄이라니!” 친구들은 미요를 비웃습니다.

미요는 물오리 과과의 응원에 힘을 냅니다.

두려움을 극복하고 멋지게 헤엄을 친 미요의 이야기를 떠올리며

말풍선을 채워 보아요.

나 헤엄치는 고양이라니. 미요는 정말 대단해!

처음에는 당장 그만두고 싶었어. 저수지는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거든.

미요

나 그렇구나. 무섭고 힘들었는데 왜 헤엄을 치고 싶었어?

미요

나 미요는 헤엄치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떻게 했어?

미요

나 도전에는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. 과과는 미요가 힘들 때 어떤 말로 응원해 주었어?

미요

나도 미요처럼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. 뭐냐면

나

네가 해낸다면 정말 멋진 거야. 미요옹!

미요



활동3 소개해 보기

털보는 「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강아지 하루」와
「세상에서 가장 겁 많은 고양이 미요」 두 편에 다 등장합니다.
여러분이 털보라고 상상해 보세요. 그리고 미요에게 하루를 어떻게 소개했을지,
하루에게 미요를 어떻게 소개했을지 적어 보세요.

하루를 소개할게.

미요를 소개할게.
